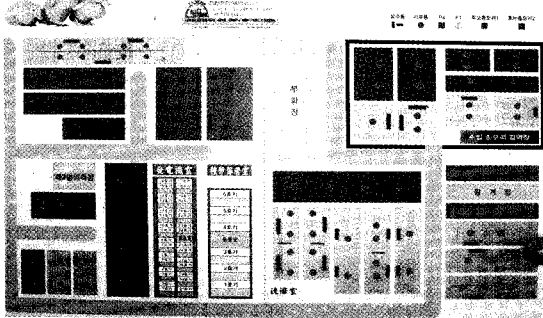


쌍둥이 부화장 (農場) 배치도



글·사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황소 발자욱처럼 조금씩 앞을 향해 나가는 쌍둥이 부화장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한 쌍둥이부화장(대표 김기용)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 같은 문구를 새겨놓은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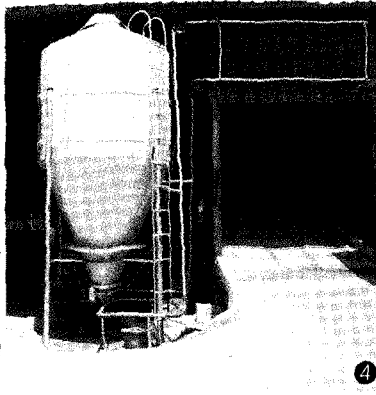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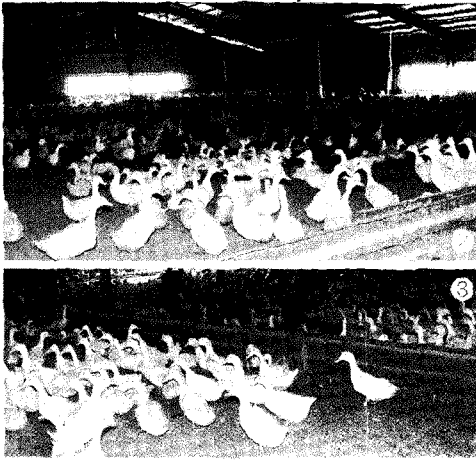
쌍둥이부화장을 둘러보면 이 같은 김기용 대표의 좌우명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쌍둥이부화장의 종오리 축사들은 잘 정리 정돈되지 않은 듯하지만 김기용 대표의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노력과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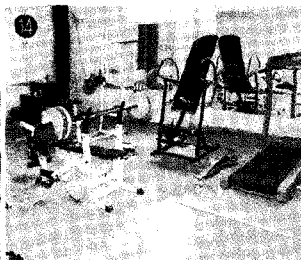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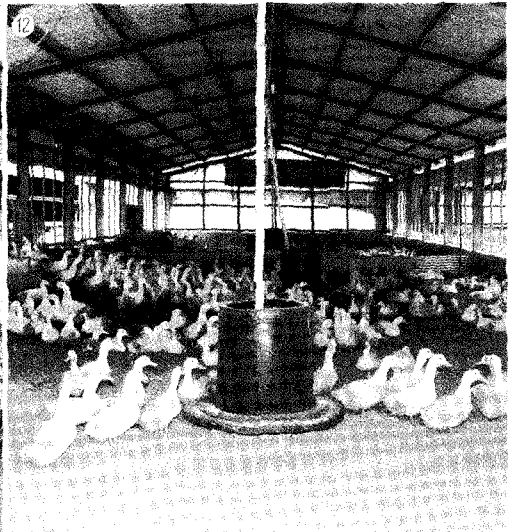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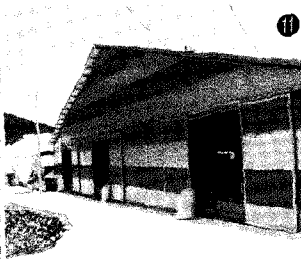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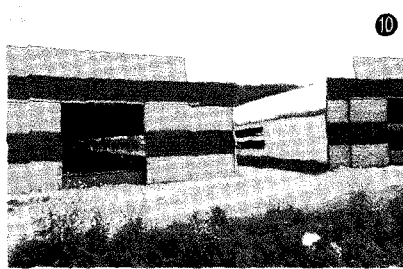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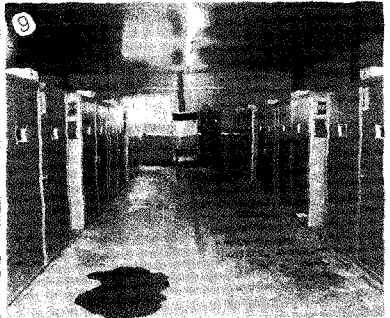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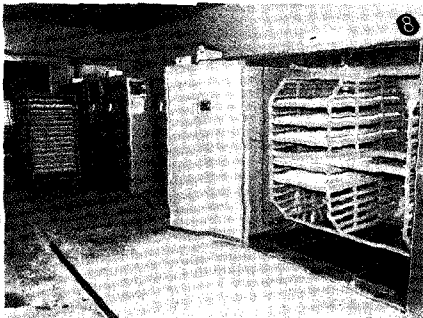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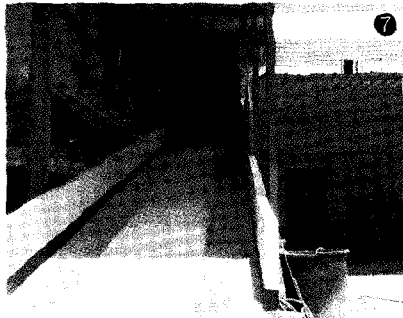
재래식 하우스 축사부터 국내 유일 2층 오리 축사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한 쌍둥이부화장을 들어서면 농장 전면에 2층짜리 축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러나 쌍둥이부화장은 축사 형태를 보면 2층짜리 축사뿐만 아니라 농장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지었던 재래식 하우스 축사를 비롯해 개량식 하우스 축사, 샌드위치 판넬 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축사들이 있다.

또 농장 가장 위쪽에는 H빔으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1 생동이 부화장 전경 2 2층 축사 내부 3 2층 축사 아래층  
 4 생동이 2층 축사로 올라가는 통로 5 김기용 대표 6 2층 축사 전경 7 부화장 2층은 직원숙소로 이용 8 9 부화장 내부 모습 10 개량식 하우스 축사 11 샌드위치 관넬 축사 12 축사 모습 13 신축중인 축사 14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신축 축사의 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이처럼 쌍둥이부화장의 축사는 다양하다. 이는 김기용 대표의 그동안의 노력과 피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대규모로 확장하지 않고 매년 또는 몇 년에 걸쳐 여유가 있을 때마다 큰 욕심 없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쌍둥이부화장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쌍둥이부화장이 자랑하는 것은 국내 오리농장 중에 유일한 2층짜리 축사이다. 2층 축사는 층당 430평 규모로 총 840평으로 돼 있다.

김기용 대표는 “2층 축사는 좁은 부지에 건축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며 “2층의 경우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오리들의 스트레스가 적고 1층의 경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며 2층 축사의 장점을 자랑했다.

### 국산 부화기 설치로

#### 최소비용으로 효율은 극대화

최근 오리부화업계는 부화장 신축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부화기 설치가 대세다. 이로 인해 국산 부화기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쌍둥이부화장의 부화기는 100% 국산 부화기로만 돼 있다. 더욱이 최근 부화장 신축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부화기 역시 국산 부화기이다.

물론 최신 외국산 부화기에 비해 시설이나 컨트롤 시스템 자체는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내 농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국산 부화기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창 신축 중에 있는 부화장에서는 국내 모 부화기 제작업체에서 농장 한편에 직접 제작해 설치까지 하고 있었다.

때문에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 상황에 따라 즉시 교체 및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 김 대표는 “부화기 제작업체가 농장에서 부화기를 직접 제작하다보니 부화기 제작과 관련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농장에 맞는 최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고장 날 경우에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A/S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화기의 경우 대당 부화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지만 국내산 부화기의 경우 대당 부화능력이 외국산에 비해 1/3정도로 그만큼 위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대표는 과거에 비해 국산 부화기의 기술력도 높아져 부화능력 자체는 외국산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둥이부화장은 기존 부화장을 비롯해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부화장을 합치면 대당 9천600개의 부화능력을 부화기가 총 101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 오리 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 ‘쌍둥이부화장’

쌍둥이부화장의 김기용 대표는 오리업계에 발을 내딛기 전에 건설업종에 종사했었다. 그러던 중 양계업을 시작으로 축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오리 산업 초창기에 오리 사육업을 시작하게 됐다.

김 대표는 오리업에 종사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지금의 쌍둥이부화장을 일궈냈다.

때문에 그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큰 욕심 없이 조금씩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김기용 대표의 말이다.

지금 오리고기가 인기를 끌면서 오리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란단.